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 로 알려주세요.

종교



사랑 사는 일이 다 그렇고 그렇디다

중보기도 컨퍼런스 JAMA

JAMA(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All Nations)가 8월 8일(월)부터 8월 13일(토)까지 '2022 JAMA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중보기도 컨퍼런스는 JAMA 웹사이트 (IPC.JAMAprayer.com)와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다. 유튜브 검색창에 '2022 JAMA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입력, 검색하면 중보기도 채널을 확인하고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김춘근 교수(자마), 호성기 목사(필라안디옥교회), 강민수 목사(시카고 레이크뷰언약교회), 허연형 목사(뉴욕 프라미스교회), 위성교 목사(북가주 뉴라이프교회), 안자웅 목사(메릴랜드 새소망교회), 강순영 목사(자마), 김은애 권사(큐티 라이프미션)가 강사로 나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강순영 목사는 "교회가 마지막 희망의 보루이고,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는 부흥이 유일한 해답이다."라며 "교회가 기도를 회복함으로 부흥을 경험하고,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과 선교지에도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문의: (310)995-3936, (903)804-4016 JAMA

시니어대학 개강 효사랑 선교회

효사랑 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 시니어대학이 가을학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노인으로 살지 말고 존경 받는 어르신으로 살자"의 학훈으로 운영되는 시니어대학은 매주 화요일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수업한다. 가을학기는 8월 16일(화) 시작해서 18주 동안 진행된다.

개설 강좌는 ●성경파노라마 ●음악교실 ●난타교실 ●건강체조 & 힐링댄스 ●하모니카 ●스마트폰 ●캘리크라피 ●두뇌훈련 아트 ●클레이 아트등이며 등록금은 월 50달러(점심 식사 제공)이다.

문의: (714) 833-2710, (714) 670-8004

다 그렇디다. 사람 사는 일이 다 그렇고 그렇디다. 능력 있다고 해서 하루 밥 열 끼 먹는것도 아니고, 많이 배웠다 해서 남들 쓰는 말과 다른 말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살아봤자 사람 사는 일 다 그렇고 그렇디다. 다 거기서 거겁디다.

백 원 버는 사람이 천 원 버는 사람 모르고 백 원이 최고인 줄 알고 그 사람이 잘 사는 겁디다. 길에 돈 다 발을 떨어뜨려 보면 개도 안 물어 겁디다. 돈이란 '돌고 돌아서 돈' 입디다. 많이 벌자고 남 울리고 자기 속상하게 살아야 한다면 벌지 않는 것이 훨씬 낫은 인생입디다.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내 눈에 피 눈물 난다는 그 말 정말입디다. 내 것 소중한 줄 알면 남의 것 소중한 줄도 알아야 함디다. 네 것 내 것 악 쓰며 따져 봤자 이 다음에 황천 갈 때 관속에 넣어 가는 거 아님디다. 남녀 간에 잘났네 못났네 따져 봤자 킁킁한 어둠 속에선 다 똑같습디다. 네 자식 내 자식 따지지 말고 그저 다같은 내 새끼로 품어 키워내면 이 세상 왔다간 임무 완수 하고 가는 겁디다.

거들 노인이 계시거들랑 정성껏 보살피며 내 앞날 내다보시기를. 나도 세월이 흘러 늙어 갑디다. 어차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 그 세상 원망하며 세상과 싸워 봤자 자기만 상처 받고 사는 것.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자기 속편하고 남안 울리고 살면 그 사람이 잘 사는 겁디다.

욕심! 그거 조금 버리고 살면 그 순간부터 행복입 텐데, 뭐 그리 부러운 게 많고 왜 그렇게 알고 싶은 게 많은 지 전생에 뭘 그리 잘 먹고 살았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지 내 팔자 참 안 됐습디다. 천진난만하고 예쁘게 웃던 입가에는 어느덧 싸구려 미소가



자리잡고 있고 적당히 손해보고 살던 내 손에는 예전보다 만 원 몇 장 더 들어 있습니다. 그 만 원짜리 몇 장에 그렇게도 예쁘던 내 미소를 누가 팔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도 매로 넘겨 버렸습디다. 그렇디다 세상 사는 일이 다 그렇고 그렇디다.

좋은 침대에서 잔다고 좋은 꿈 꾸 답디까? 아님디다.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겁디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들 겁디다 내 인생인데 남 신경 쓰다 보니 내 인생이 없어 집디다.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건지, 잘 살아 가는 사람들은 그걸 어디서 배웠는지 안 가르쳐 줍디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다가 언제 인지 기억도 안 나고 정말로 기쁘고 유쾌해서 크게 웃어본 지가, 그런 때가 있기는 했는지 궁금해 집디다. 알수록 복잡해지는 게 세상이었는데 자기 무덤 자기가 판다고 어렵히 알아지는 세상 미리 알려고 버둥거렸 지 뭘니까. 내가 만든 세상에 내가 질려버립디다.

알아야 할 건 왜 끝이 없는지 눈에 핏대 세우며 배우고 배워가도 왜 점점 모르겠는지 남의 살 깎아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내가 남보다 나은 줄만 알았는데, 돌아보니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둘러보니 이제껏 내 살 내가 깎아먹고 살아왔습디다. 그렇디다.

세상 사는 일 다 그렇고 그렇디다. 왜 그렇게 내 시간이 없고 태어나 살아가는 게 죄란 걸 뼈에 사무치게 알려 줍디다. 맘태 할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무서워하던 그 때가 행복했습디다. 엄마가 밥 먹고 '어여가자' 하면 어디인지도 모르면서 물 마른 밥 빨리 삼키던 그 때가 그리워 집디다.

남들과 좀 틀리게 살아보자고 바둥거리다 보니 남들도 나와 같습디다. 모두가 남들 따라 바둥거리면서 지 살 깎아먹고 살고 있습디다.

잘 사는 사람 들여다 보니 잘난 데 없이 잘 삽디다. 많이 안 배웠어도 자기 할 말 다하고 삽디다 인생을 산다는 것이 다 거기서 거겁디다. 그저 허물이 보이거들랑 슬그머니 덮어주고 토닥거리며 다독이며 둥글게 사는 게 인생입디다.

-관허 스님-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찬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

숨은그림찾기 정답

